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4호 [루게 제24392호] 주제102(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

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사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자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는 당신 밖에 모른다》는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당중앙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더욱 굳게 단결하고있다.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자기 영도자만을 순결하게 받들려는 충정의 열정이 차넘치고 그 어디에서나 오직 당을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고자려는 철석같은 의지가 맥박치고 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아래 총진군을 승리의 기쁨으로 계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진행된 이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리정표로 된다.

회의에서는 당의 유일적영도를 거세히 견디면서 분과책동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감히 당에 도전해나선 자정책임당의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낱알이 폭로하였다. 우리 당은 장성택을 제거하고 그 일당을 단호히 숙청함으로써 위협천만 분과책동행에 결정적타격을 안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지를 높이 들고 당중앙의 영도 아래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혁명은 사상과 영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이 확고한 필승불패의 혁명이며 우리 조국은 핵무기로도 깨뜨릴수 없는 위대한 일심단결의 강국이다.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들어섰지만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이 추호의 탈선도 없이 승승장구하고있다. 우리 당과 혁명의 영도의 대, 단결의 대가 뜻깊어 이르고 이 땅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수령의 사상과 영도는 혁명과 건설의 생명선이다. 선군조선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오늘의 총진군은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력사적전진의 계속이며

령도자의 사상의지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 수령을위해, 일심단결의 대진군이다. 이번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계기로 당의 유일적영도 밑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더욱더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나아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번 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의 조직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전당의 통일단결은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고 혁명승리의 선결조건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밑에 오늘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이 새로운 높이에서 끊임없이 심화되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는 끝없이 밝은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를 떠나서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창조해나가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높은 존엄과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전당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여기에 수령의 당, 선군혁명의 강력한 참모부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은 전체 당원들이 한결같이 영도자만을 따르고 전당에 영도자의 사상과 뜻, 신념과 의의만이 차남칠 때 보장되게 된다. 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역사적시건인 지금이야말로 1956년 8월전원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단호히 숙청하고 우리 당안에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던 그 기풍, 1970년대에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지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던 그 정신이 그대로 맥박쳐야 할 때이다.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하여 우리 당내에 우연히 끼여든 불순분자, 현대판종파들이 적발숙청됨으로써 우리 당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이번 회의는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전배로 다져나가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혁명은 영도자와 인민,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며 승승장구하여왔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르는 위대한 혼연일체, 수령과 당과 인민이 사상 의지적으로, 도덕리적으로 굳게 결속되어 생사운명을 함께 해나가는 불패의 통일체, 바로 여기에 우리 일심단결의 참모습이 있고 무한대의 위력이 있다.

지금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은 우리의 일심단결을 눈에는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파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이번에 적발숙청된 반당반혁명종파분자 일심단결의 당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에 편승한 만고의 역적무리이다.

한중도 못되는 종파분자들이 풀러다거던 다고 하여 절대로 약화되거나 혼들릴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의 생세이며 천만군민의 혁명적신념이다. 전회의 나날과 전후 종파분자들이 악랄하게 책동할 때 우리는 수령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다고 수령님께 절절히 말씀올린 락원의 너당원과 태성할머니, 위대한 장군님만 따르면 반드시 잘살 날이 온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을 앞장에서 헤쳐간 자강도인민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지금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짝 차남치고있다.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세상이 얼백번 변한다 해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직 자기 영도자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들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것이다.

이번 회의는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전환적 계기로 된다.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은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을 끝없이 격분시키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령적유혹을 판별하기 위하여 천만군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는 시기에 강성국가건설을 지연시키려고 교묘하게 책동하고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은 이런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으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철적의 의지가 이번 회의를 통하여 뚜렷이 파시되였다.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은 파학이며 승리이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밑에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원수들의 책동속에서도 생기와 활력을 넘쳐 전진하고있다.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시평속도》창조의 불

혁명의리, 이것이 천만군민의 고결한 총정에서 최첨단들과의 혁혁한 성과들이 기록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신 열인들이 빛나는 현실로 꽃피고 경제강국 건설과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들이 창조되고있다.

천만시원이 집쌍이고 아무리 방대한 파업이 나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식대로 강성변영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지금 더욱더 세차게 분출되고있다.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이 분쇄됨으로써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의 앞길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지게 되였다.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 강철의 의지와 배짱으로 중대조치를 취하여서 당과 혁명대오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우리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거대한 업적으로 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이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력사적의의와 중요성을 똑똑히 알고 위대한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필승의 신심드높이 힘차게 싸워나가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갈 투철한 혁명적신념을 지녀야 한다. 혁명적신념이 강한 혁명가는 사심이 없고 공명을 모으며 난관앞에 동요하지 않고 대세와 주체에 따라 처신하는 법이 없다. 력사적교훈은 신념이 투철하지 못하면 준엄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없고 나중에는 종파와 반역의 길에도 서슴없이 들어서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혁명적신념을 잃는것은 곧 죽음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결연한 신념을 지니고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과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함께 하는 참된 혁명동지가 되어야 한다. 평범한 나날이나 준엄한 나날이나 가식과 번심을 모르는 일원단결, 그 어떤 유혹과 강압에도 꿋꿋이 맞받아나가는 억세 절개, 대를 이어 일당백공격속도, 《마시평속도》창조의 불

혁명의리, 이것이 천만군민의 고결한 총정에서 최첨단들과의 혁혁한 성과들이 기록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신 열인들이 빛나는 현실로 꽃피고 경제강국 건설과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들이 창조되고있다.

천만시원이 집쌍이고 아무리 방대한 파업이 나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식대로 강성변영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지금 더욱더 세차게 분출되고있다.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이 분쇄됨으로써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의 앞길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지게 되였다.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 강철의 의지와 배짱으로 중대조치를 취하여서 당과 혁명대오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우리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거대한 업적으로 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이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력사적의의와 중요성을 똑똑히 알고 위대한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필승의 신심드높이 힘차게 싸워나가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갈 투철한 혁명적신념을 지녀야 한다. 혁명적신념이 강한 혁명가는 사심이 없고 공명을 모으며 난관앞에 동요하지 않고 대세와 주체에 따라 처신하는 법이 없다. 력사적교훈은 신념이 투철하지 못하면 준엄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없고 나중에는 종파와 반역의 길에도 서슴없이 들어서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혁명적신념을 잃는것은 곧 죽음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결연한 신념을 지니고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과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함께 하는 참된 혁명동지가 되어야 한다. 평범한 나날이나 준엄한 나날이나 가식과 번심을 모르는 일원단결, 그 어떤 유혹과 강압에도 꿋꿋이 맞받아나가는 억세 절개, 대를 이어 일당백공격속도, 《마시평속도》창조의 불

혁명의리, 이것이 천만군민의 고결한 총정에서 최첨단들과의 혁혁한 성과들이 기록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신 열인들이 빛나는 현실로 꽃피고 경제강국 건설과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들이 창조되고있다.

천만시원이 집쌍이고 아무리 방대한 파업이 나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식대로 강성변영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지금 더욱더 세차게 분출되고있다.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이 분쇄됨으로써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의 앞길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지게 되였다.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 강철의 의지와 배짱으로 중대조치를 취하여서 당과 혁명대오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우리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거대한 업적으로 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이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력사적의의와 중요성을 똑똑히 알고 위대한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필승의 신심드높이 힘차게 싸워나가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갈 투철한 혁명적신념을 지녀야 한다. 혁명적신념이 강한 혁명가는 사심이 없고 공명을 모으며 난관앞에 동요하지 않고 대세와 주체에 따라 처신하는 법이 없다. 력사적교훈은 신념이 투철하지 못하면 준엄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없고 나중에는 종파와 반역의 길에도 서슴없이 들어서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혁명적신념을 잃는것은 곧 죽음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결연한 신념을 지니고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과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함께 하는 참된 혁명동지가 되어야 한다. 평범한 나날이나 준엄한 나날이나 가식과 번심을 모르는 일원단결, 그 어떤 유혹과 강압에도 꿋꿋이 맞받아나가는 억세 절개, 대를 이어 일당백공격속도, 《마시평속도》창조의 불

사소한 난관앞에서도 동요하고 쓸데없이 틀을 차리면서 관료주의를 부리는것과 같은 현상들은 우리 일군들의 투쟁기풍, 일본새와 인연이 없다. 특히 모든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지니고 언제나 인민대중과 고풍을 같이하며 무슨 일에서나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필승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하여

시련과 난관은 있어도 우리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 땅우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 퍼질 날은 기어올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귀감으로 삼고 실천행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기 위하여,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왕성한 투지와 배기와 정열에 넘쳐 전투적으로 살며 일해나가기 위하여, 건설의 최전성기를 대원영기로 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서 인민경애 모든 부문에서 《마시평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생산적양양을 일으켜나가기 위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과 파괴를 힘있게 벌리며 군민협동작전을 강화해나가기 위하여

사상사업에서는 절대로 만족이나 양보가 있을수 없다. 사상사업에서 공백이 생기면 사람들의 머리가 비게 되고 머리에 공백이 생기면 온갖 이색적인 사상의 침습을 받아 사상적으로 변질될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들이 순간을 살라도, 승세를 비추고 오로지 경애하는 원수님과 수령과 보폭을 같이하고 생산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이 인 위치에서 일한다고 하여, 혁명년한이 오래다고 하여 사상이 투철하고 불변한것은 아니다.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며 당원들이 모든 면에서 대중의 거울이 되고 선봉부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끝없이 빛내며 주체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신념의 대오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

작사 차호근, 리지성

작곡 설대성, 함 혁

의지적으로 힘있게 (♩=104)

1. 누구라 백두의 대업을 이룩할 분이 그
 이는 김정은동지 우리 의최고사령관 (후렴)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 그 증오는 우리의 증오 백두
 의 - 혁명무력은 원수님 만파른 다 백두
 의 - 혁명무력은 그 령도만 받든 다

- 2. 믿는다 죽어도 못 떠날 영생의 품을
 우리는 김정은동지 그이와 한심장이다
 그이 정은 우리 피와 살
 그이 믿음은 우리의 명줄
 (후렴)
- 3. 웨친다 변심을 모르는 혁명의 총대
 위대한 김정은동지 사수할 붉은 칼이다
 그이 결심은 우리의 목표
 그이 명령은 우리의 승리
 (후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천견만견의 성세로 결사옹위할 역척의 기상 하늘땅에 차넘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목소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단, 전군, 전민이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행군길을 뜻깊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지난 12월 8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소식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시기에 열린 이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받들어모시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과감히 전진해나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시대와 력사앞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지금까지 당조직들과 당원들, 인민들, 일군들은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의아름다운 령도에 도전해나서는자는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추호도 용서치 말아야 한다는 혁명의 철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신념의 좌우명,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올 필승의 신심을 더욱 굳게 심어준 의의있는 계기였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국가과학원 수하연구소 소장 김성운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심장으로 받들어모신 주체혁명위업의 유일할 계승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우리의 태양이다.

얼마나 무거운것인가를 심장으로 깨닫게 되었다.
우리 대학생들의 백지장처럼 순결한 두뇌와 심장에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심어줄 임무가 나를 비롯한 교육자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 깨끗하고 열정적인 청년 대학생들을 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잘 키워 우리 원수님께 열매를 맺어 내세우고있다.

정치국 결정서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한다.
이번 확대회의는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세대 청년 대학생들에게 참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력사책을 통해서나 알고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오늘의 세시대에 겪게 되니 정말이지 혁명이란 얼마나 준엄하고 심각한것인가를 뼈저리게 절감하게 된다.

그런데 감히 장성택따위가 하늘의 해를 가리워보자고 헛손질하다니 될 말인가.

우리 혁명의 력사에서 종파라는 말조차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우리 세 세대들중에 신념이 떨떠름한자, 아첨분자따위들이 단 한명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위시대에 이 한몸을 주저없이 부러도 바치겠다. 대학생들을 과학기술만을 아는 절름발이가 아니라 당과 수명을 먼저 알고 조국과 인민에게 충직한 쓸모있는 혁명인재, 진짜배기과학기술 인재로 키워나가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

당과 수명에 대한 충실성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제일생명이자, 우리들은 통남산의 아들딸답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투쟁의 맨 앞장에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를 받으며, 그이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그이의 지시인들을 그 누구보다도 원수님의 천재적인 위인상을 잘 알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떠나서는 이 조선의 발전도 존재도 생각조차 할수 없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세계앞에 나는 웨치고있다. 우리 조선의 지식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 있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기발아래에서만 과학연구사업을 하겠다는것이 이 땅의 모든 과학자들의 철석같은 신념이며 드림없는 의지이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부총장 리원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앞에서는 수령만세를 웨치고 충실성을 골갈 외우던자들이 뒤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는가를 알게 되니 사상단면, 사상교양사업이 왜 중요하며 자라나는 세 세대들을 혁명의 역군으로 키우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의 임무가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는 김중대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

이다. 우리들은 통남산의 아들딸답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투쟁의 맨 앞장에

실 것이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 정책옹위전에서 추호의 양보나 타협을 모르는 맹수가 되었다.

우리에는 전후 종파놈들이 인민 생활이 어찌고저하고 떠돌아다니는 수령님만 지지한다고 말슴올리면서 당과 수명을 옹위해나섰던 태성할머니와 같은 충신들이 천견만견의 성세로 굳게 뭉쳐있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지반》이라는것을 꾸리고 그속에서 판공을 꾸며 살아보려 했으니 정말 무덤가고도 가련하기 그지없다. 감히 어디에다 대고! 우리 땅이 인민을 위해 펼쳐놓은 구상을 음모로 사비중상하고 나중에는 공공연히 태공하였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이 막대한 피해를 준 이런 놈과 이 일당을 인민이 어찌 용서할수 있겠는가.

혁사의 집안에서 우리는 인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제의한다. 그놈들을 씨도 없이 징벌해달라.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김진국은 정말 이가 갈리고 피가 거꾸로 솟아쳐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다.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특대형범죄행위를 저지른 장성택일당을 어떻게 징벌해야 가슴이 후련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치솟는 분노를 이렇게 터뜨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더욱 백배해진 우리의 일심단결

이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로 하여 우리 당과 혁명대오는 더욱더 순결해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백배해졌다는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의 토로이다.

당과 동상이공, 양봉옹위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누구이든 준엄한 철추가 내려져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당의 사상적순결성과 조직적결집성이 보다 공고해진다것은 우리 당의 력사적경험이다. 우리 군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들은 이번 계기를 통하여 더욱 각성되었고 경애하는 원수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신념이 백배해졌다.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샅샅이 결사옹위해나가겠다.
강서구역 대성특화전문농업농장 제5작업반장 박순실은 장성택당장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 폐물매개체이다. 이 인간추물들의 명줄을 내손으로 결판내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갈 신념의 대오 끝없이 흐른다.

